

특 강

농촌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한 경 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농촌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를 정확히 다루려면 세가지 측면의 교육, 즉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 이들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교육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농촌 가족에 있어서의 가정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교육의 장으로서의 농촌의 가정환경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와 함께 가정기능의 변화,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의 기능이 가정 밖의 공적영역으로의 전이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 사회화의 기본 단위는 여전히 가정이며, 인간교육의 최선의 장소이자 기본적인 장소로 성숙한 인간을 키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교육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가정환경 및 부모의 역할에 관한 방대한 양의 문헌들은 사회적으로 성숙하며 행복한 성인들에 의해 길러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는 부모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성인일때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부산물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부모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농촌 가족의 현실을 살펴 볼 때 필자는 일말의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I. 자녀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환경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간대가 형성되면서 가정환경 검사 척도 개발 및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70~80년전으로 192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문화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주안점을 두었다가 점차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기본적 안정감,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다. 가정의 가치지향성, 집단적 성격 및 가족내의 심리적 역동성 등을 지표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가정환경을 아버지 직업, 가정의 SES 등의 상태변인(status variable)으로 파악하는 것의 한계성이 지적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과정변인(process variable)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환경과정지수(environment process characteristics)를 산출하는 노력들이 행해졌다. 즉 가정의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로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물질적 가정환경의 영향력도 결국은 부모의 육아방식의 형태나 가족원, 그중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계에 따른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제1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백하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개념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시각의 확대는 Bronfenbrenner의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체계내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ecological perspective)에 의해 이론적으로 집대성되었는데, 여기서 내포하는 환경

본 특강은 1991년 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강연 내용임

의 개념은 종래의 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보다 더욱 광범위하면서 분화되어 있다. 일반 체계이론과 공통점이 많은 이 모델에서는 인간 발달을 인접환경 내적인 상황, 이들 인접환경들간의 관계, 그리고 인접환경들이 속한 광역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접근한다. 우리 농촌가족의 자녀교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가족만을 보지 말고 가족을 포함하는 광역의 환경을 살펴 보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모델을 간단히 소개하고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할까 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환경의 구조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라는 하부구조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들 하부구조들이 연속된 크기로 더 상위구조들 속에 겹겹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형상화된다.

미시체계(micro system)는 아동과, 아동에게 영향력있는 타자와의 대면적 상호접촉이(face to face contact) 이루어지는 인접환경을 의미하며, 가정, 학교, 친구집단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접환경내에서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가, 자신감있는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고 있는가,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역할과 관계가 존재하는가, 체계내 상호적인 관계에서 자녀에게 적극적 역할이 주어지는가 등이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며 그 체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지적된다. 바람직한 미시체계내에서 자란 아동은 자라면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사회관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자신감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미시체계의 구성원의 수가 너무 적거나, 그 관계가 상호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일때, 혹은 체계내의 상호작용이 너무 부정적일때의 세가지 경우를 미시체계의 사회실조(social impoverishment)의 대표적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통적 농촌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가족 제도나, 부락내에서의 친척, 이웃과의 빈번한 접촉 및 다양한 관계가 유지되는 가정이 풍부하고 자극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는 미시체계로 아동들에게 매우 바람직하다. 미시체계가 상호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인 것은 가족내의 권력의 균형이 깨어질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완전한 통제하에 두려고 할 때 나타난다. 건강한 자녀양육은 상호성이 필수적인데 이런 경우 이 필수요건이 거부된 것이다. 반면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도 미시체계가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도 역시 발달적으로 중요한 상호적 과정을 경험할 기회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접환경내에서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따뜻한 분위기의 상호접촉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온정어린 행동(maternal warmth)이 자녀의 성취동기 유발과 자긍심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육체적, 언어적 강화, 자녀와 의논하고 대화하기, 자녀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기등이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으로 유형화된다. 오늘날 한국 농촌 가정의 어머니들, 즉 과중한 농업노동,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행동유형을 자주 관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과히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중간체계(meso system)는 미시체계들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성장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주요환경들간의 상호연관성이다. 가정-학교, 가정-자녀의 친구집단, 가정-교회, 학교-이웃간의 관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체계들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가, 상호협조적이며 빈번한 접촉이 되고 있는가, 이들 각 체계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지 않은가 등이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다. 우리 농촌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는 거의 없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대관계도 밀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며 그런 의미에서 농촌자녀들의 중간체계도 결코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

외체계(exo system)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서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접환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게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나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성인에게(대부분의 경우는 부모)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회의 주요체도로, 예를 들어 직업세계, 대중매체, 정부기관, 교통, 통신 시설, 물품과 용역의 분배체계, 비형식적 사회적 관계망등이 포함된다. Bronfenbrenner는 부모의 직장, 부모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부모의 친구집단 등을 예로 들었다. 자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세계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직장에서의 지위나 환경은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취업조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나 집단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책임감있는 부모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그 자녀들의 이해를 고려하여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산업화에 따라 공적 생산공간과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의 분리가 심화되면서, 생산자 역할과 부모 역할이 점차 경쟁적, 갈등적 관계에 있게 되며 정부가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20세기 개인과 사회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흔히 일컬어진다. 부부 모두가 과중한 농업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현재 우리 농촌가족도 특히 이런 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극히 미흡하다는데 또한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아동에게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위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 사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관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모의 필수적 기능이 어떻게 지원, 격려 및 평가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방법이라는 설이 있다. 진정으로 불쌍한 자녀들이란 모든 책임을 부모들에게만 맡겨져 버리는 사회에서 사는 자녀들이며, 특히 부모들이 자녀양육이라는 어려운 책임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일때 특히 그러하다는 관점이다. 불쌍한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며, 진정으로 부유한 아이들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지원망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며 그들의 부모들 또한 따뜻하고 상호지원적인 관계망의 일

원인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별다른 사회, 정책적 지원망이 없이 부모의 부족한 자원에만 의존해야하는 우리 농촌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불쌍한 자녀”들의 범주에 속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거시체계(macro system)는 앞에서 언급한 하위구조의 형태로 포함되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법률적, 정치적 체계와 같이 특정문화나 하위문화권의 틀을 특징지우면서 문화전역에 아아치처럼 펼쳐있는 관례적인 패턴, 사회제도에 관한 청사진을 의미한다. 즉 동일 문화권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정형적 환경으로 환경의 구조나 활동의 패턴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법률, 규칙 등과 같이 명백한 형태를 가진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시체계는 비형식적이고 묵시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되어 관습과 일상생활 습관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이다. 여기서 거시체계를 구조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정보와 이데올로기의 매개체로서 개념화하고 검토한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거시체계 내에서, 즉 한 문화권 내에서 아동의 양육자가 접하는 지위나 우선 순위는 그 문화권내의 여러 다른 상황에서 아동이나 양육자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상호작용하는가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의 가족과 자녀 교육 문제는 농촌이 우리 전체 사회에서 자리잡고 있는 비중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사회정책도 거시체계에 포함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 집단이 이해가 다른 집단의 희생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는가, 개인주의적 가치가 집단주의적 관점을 압도하는가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된다.

개인주의화, 물질주의화의 경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심각하게 영향 받으며 그러한 사회변화의 값을 가장 치루는 층은 어린이들 즉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와 이웃관계망이 파괴, 변질될 것을 알면서도 관광 호텔이나 골프장 등을 무절제하게 허가해주는 정책은 반가족, 반아동 정책이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사회 문화적 위기로 다가선다고 규정 지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이웃집

단의 파괴, 변질은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여건인 사회적 연속성(social connectedness)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환경의 영향이 긍정적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기회라고 표현하고, 부정적일때 이를 각 환경체계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위기요소라고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각 하부 체계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문화적 위기요소의 근원으로 사회적 실조와 문화실조(cultural impoverishment)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실조란 어린이의 환경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는데 Campbell(1975)는 인간 경험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적 경험의 풍부함으로 이는 물질적 자원의 영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경제적, 물질적 결핍은 심각한 위협이지만 인간에게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진정한 책임은 경제적 결핍에 수반되는 사회적 결핍에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실조란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 사회의 이념이나 일련의 가치체계들이 침해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두 형태의 실조는 일상 생활의 내용에서 표출되거나 가족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지원체계의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기능 중의 하나인 사회 구성원에게 무엇이 기대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이끌어 주며,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기능이 파괴, 침해될 때 사회적, 문화적 실조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실조현상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및 거시체계 어느 수준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II. 한국 농촌가정의 교육적 환경

한국농촌 가정의 자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는데 이런 기본 실태를 조사한 연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녀교육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련연구들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는 자녀교육이 생활개선 요구도가 높은 분야이며,(1990년의 이 한기 등의

농민의 생활개선 요구 분석에 의하면 생활기술 내용별 유료교육 희망을 중 자녀교육이 부업기술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요구를 나타내었고, 김성수등(1986)의 농촌 생활 개선사업에 관한 농촌여성의 요구 분석에 따르면 농촌여성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로 자녀교육 및 육아에 관한 교육요구가 1위로 나타나 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 가운데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고(김대환, 1979; 박평식, 1984) 이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에 약 1800여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김대환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자녀교육을 욕구 순위 첫째로 지적하였으며, 1979년에는 43.7%, 그리고 박(1984)의 연구에서는 64.9%가 응답하여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주민들은 농경지를 확대하는 것이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자녀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또한 이촌 희망자의 이촌이유도 자녀 교육환경 취약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민들이 자녀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자녀교육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농촌의 학교교육의 상대적 낙후 및 학업환경의 열악성, 그리고 농가가계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과다한 부담에 대한 논의등 학교교육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의 평가등은 되어 있지 않다. 농촌이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그 안에서 농촌가족은 해체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음을 논의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자라는 자녀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농촌가족 변화의 양태 및 과정에 대한 이해조차 정확히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교육의 장으로서의 농촌의 가족의 환경과 기능 및 그 변화양태는 전체사회내에서의 농촌사회의 지위변화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한국 농촌과 농촌가족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장 격심한 충격과 변화를 겪어오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도시화와 공업화로 집약되는 산업화 그 자체가 농촌의 전통적인 사회, 경제, 문화, 가치질서의 해체와 산업사회질서에 의한 새로운 재통합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농업사회의 기층을 형성하는 사회집단인 농촌의 전통적 가족은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해체되는 1차적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급속하며 제도적 완충노력이 전혀 없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현재는 새로운 가치의 재통합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실제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들도 농민들의 필요를 반영시켰다기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농민의 사회적 위치는 그들의 전체사회 내에서의 경제적 기여도가 약화되고, 외부 행정과 정치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불리해졌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대에 살고 있다. 농촌, 농민을 보는 시각 자체도 생산자로서의 농민문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인간으로서의 농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농민에 관한 연구는 극히 빈약하다. 농촌가족과 자녀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적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농촌가족은 마을 또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되는 농촌지역사회에 안주하여, 마을의 지배적 가치인 유교주의, 가족주의 그리고 마을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치체계가 제도화된 사회질서 속에서 사회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집단이었다. 이때 한 부락의 구성원들은 인간관계는 한정된 지리적 공간에서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진 "속지성"과 "지면성"의 특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관계망은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가질 수 있으나, 농촌사회의 인간적이고 정의적인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마을 규범이 제반 사회관계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므로 이웃간에 협력과 도움을 주는 공동체 규범이 장려되어 왔다. 전통적 가족의 핵심적 관계는 부자관계였으며 다른 가족 성원들간의 관계는 이 관계에 종속되어 있었

다. 현재 농촌에서 공동체 규범은 그 구속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전통적 부자중심의 가족관계 또한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자체의 재생산이 농촌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잘 배우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계속 살도록 격려되지 못하며 자녀들은 가능하면 도시지역으로 떠난다. 즉 현재의 농촌 가족관계는 공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가는 가족 성원들을 배출하고 있다. 농촌의 평균 가족원의 수는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가족당 평균 0.8명에 달하는 별거 가족원의 수와 상관 관계가 높으며 이 중 상당수는 취학을 위한 자녀의 별거이다. 농촌경제 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학생은 이촌 취학이 드문 편이나,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31.6%, 대학생은 무려 8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수입에 있어 자녀교육에 바치는 지출은 막대하며 자녀가 집을 떠나 인근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농가 경제에 갖는 그 비중은 막대하다. 이촌 취학생은 거주 방법은 자취가 54.1%로 가장 높고 친척집 24.6%, 하숙 18.0%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는 3.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장래에 대해 그만큼 회의적인 부모들은 이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않는다. 농촌의 부모들은 농촌이 여러 환경적 면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인식하므로 자녀들이 농촌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에 자긍심이 부족하다. 김동일(1988)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대다수(77%)가 자녀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을 권유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농업이라는 어휘를 접할 때 농민들의 66%가 "힘들다", 37%는 "피곤하다"를 지적하였고, "창조적이다"는 13%, "자랑스럽다"는 9%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농민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경제적 독립, 그리고 탈농업을 통한 출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노(1965)의 연구에서는 1965년에는 자녀에게 자기의 직업인 농업을 시키려는 농민이 52%였는데 1984년 박(1984)의 연구에서는 5.9%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농민들은 자녀들이 공무원이나 회사원,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1986에

서 재인용).

그런데 문제는 자녀교육이 가족관계의 권위체계의 변화와 가족해체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자라나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진출해야 된다고 배운 자녀들은 농촌가족과의 생활방식과의 괴리가 점차 심화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려고도 않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시킬려고도 않는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일방적으로 받는데 익숙하게 되며, 이렇게 보상되지 않는 자녀 양육 때문에 체험하게 되는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상 내재되어 있겠다.

III. 맺는말

환경의 종합적 영향은 모든 하부체계의 영향들 간의 역동적 구조관계의 영향이 축적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지만, 이들 다양한 환경체계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발달의 장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 중 가족, 학교, 이웃이라는 인접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 수록 광범위한 차원의 계급, 사회, 경제적 질서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바로 이들 인접환경이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가정환경에 관한 방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기란 사실 불가능하지만, 결국은 자녀의 건전한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가장 교육적인 환경은 “풍부한” 환경-풍부한 애정, 상호작용, 관계망 등-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서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생태학적 연구들이

가족 시스템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가족내적 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 농촌가정에 대한 연구는 가족내적과정 뿐만 아니라 가족외적 조건이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족외적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이들의 개인적 환경이 위기적 요소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원의 중요도가 커지게 된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의 각 가정이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 지역사회외의 긍정적 요인을 장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촌 지역개발은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녀교육의 사회문화적 위기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겠다.

농촌가족의 자녀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농촌가족이 매우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계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농촌가족들간의 차이는 어쩌면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농촌이라는 지역사회를 공유하면서 가지는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해 내면서 또한 동시에 상이점을 이해하고 그 기초위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의한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농/영세농/농업노동가구 혹은 농가인가 비농가인가에 따라 생활 습관,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자원, 부부관계, 부부간의 시간 사용, 가족 가치 등에 있어 차이가 남을 우려는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녀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족의 영향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